

경축 메시아절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의 출현을 감사하라

‘메시아절’의 기원

인류는 고통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6000년 전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겪어온 게 된 인류의 태생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 또한 누구나 인간이면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이다.

한편 그 고통은 인류가 마귀의 노예가 됨으로써 비롯된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열원 또한 서서히 생겨나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류가 마귀에게 포로가 된 후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 메시아 출현의 열원을 담은 절기를 만들었으니 바로 그 날이 ‘메시아절’이다. 즉 ‘메시아절’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오던 절기였던 것이다.

메시아의 증표

메시아란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메시아가 출현하면 그는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인류를 구원한다.

메시아는 각 종교에서 기다리는 주인공을 의미한다.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이긴자와 불교에서 기다리는 미륵(미트라)과 우리 민족 종교에서 기다리는 정도령이 서로 다른 존재라면 말이



고대 태양신(미트라)을 새긴 점토 벽화

안 된다. 메시아는 유물론과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 경전에 그 증표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슬’이다. 성경은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슬’, 불경 열반경 전권에 감로(甘露), 격암유록 등의 예언에는 감로(甘露)해인(海印)이라고 써어 있다. 즉 메시아는 그 증표로 이슬을 갖고 나온 다.

예수의 생일은 1월 6일

기독교에서는 지금부터 2014년 전 12월 25일 예수가 태어났고, 그가 구세주

라면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가 태어난 날은 1월 6일이라고 한다.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시대에 다수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영돈 PD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승리재단(대표 윤봉수)은 12. 2. 이영돈 PD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이영돈 PD는 10. 23. KBS <해피투

게더>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조희성 구세주님이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후 영생교에서 자신과 관련한 부장관사와 검사를 처단하려고 처단조를 만들어 몇 십 명의 청년들이 부친 뒷산에서 훈련하다가 적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바 있다.*

‘메시아절’을 경축하라

‘메시아절’의 기원과 예수의 진짜 생일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류가 출현을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리기 위하여 ‘메시아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다. 또한 5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메시아절’을 기념하는 종교단체는 승리재단밖에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왜 12월 25일이 ‘메시아절’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메시아가 출현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가 지금 승리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

김충천 기자

지회장

지역2등: 4지역(윤봉수 지역장, 이영애 지회장)
지역3등: 5지역(박철수 지역장, 신순이 지회장)

구역1등: 45구역장 신순이
구역2등: 21구역장 안명숙
구역3등: 53구역장 석선자

개인1등: 신순이 권사
개인2등: 석선자 권사
개인3등: 김인숙 집사*

지역1등: 3지역(김갑용 지역장, 이승애

본부재단 6개지역 활동 시상식 열려

3지역 3개월째 연속 1등

승리재단 신도회(신도회장 김상욱)에서는 12. 2. 정기 구역장회의에서 본부재단 6개 지역 11월 활동 성적을 발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역과 구역, 그리고 개인들에게 시상식을 하였다. 11월 성적은 3지역이 월등한 헌금으로 1등을 차지하였고 4지역이 발로 뛰는 이영애 권사님의 승리신문 배포에 힘입어 2등을 차지하였으며, 5지역이 신순이 지회장의 활약에 힘입어 3등을 차지하였다.

해외에 있는 식구까지 잘 관리하는 안

지역1등: 3지역(김갑용 지역장, 이승애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월 25일은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메시아날”

5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메시아절’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25일만 되면 ‘메시아절’로 지켜왔던 것을 우리 승리재단에서 지키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 땅위에서 5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메시아절’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단체는 우리 승리재단밖에 없습니다. 5000년 전부터 ‘메시아절’로 지켜오던 그 절기를 누가 탄생한 날로 고쳐

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야 ‘메시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요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인 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투게더>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및 ‘다시보기’ 없애

승리재단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제2중재부)는 11월 25일 1차 조정심리를 열어 KBS가 반론보도를 해주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심리에 앞서 KBS는 답변서를 통하여 “모 종교단체라고 하여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장진훈 중재부장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심리를 시작함으로써 모종교단체가 영생교로 특정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 중재부장은 KBS 측에서 출석한 <해피투게더> 김영도 CP에게 명예훼손의 주요 쟁점인 처단조에 관하여 이영돈 PD에게 확인한 결과를 묻자 김영도 CP는 “이영돈 PD가 처단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목한 두 명을 접촉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퇴직한 지 10년이 되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즉 이영돈 PD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들은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정심리의 특성상 시간이 없으므로 반론보도문 인정해 준다고 하여 “이영돈 PD를 살해하기 위해 처단조를 결성한 적이 없고, 적발된 적 또한 없다”라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하였고, 승리재단(윤봉수 대표)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의 합의에 따라 KBS는 <해피투게더> 홈페이지의 <알려드립니다>에 위의 반론보도문을 11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게재하기 시작했고, 10월 23일자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25일

경축 메시아절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께 감사드립니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